

앤디김 “韓, 안정이 시급...정치 야심에 현 상황 이용 안돼”

회견서 제언...“정치적 대치 상황 우려, 평화적 해결되길” “트럼프 동맹강화시 협력...아시아에 강압책 쓰면 맞설 것”

앤디 김(42·민주·뉴저지·사진)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이어진 한국에서 정치적 안정이 시급하며 자국의 정치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해서



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연방 의회에서 아태 지역 국가의 언론을 상대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지금

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지금 국민들이 모든 언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언행을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동들에 대해 “분명 우려했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를 결의하고, 그 해제 명령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한국 국내의 정치적

인) 대치 상황을 우려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민주적 절차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보였기에, 어느 정도 안심한다”고 밝힌 후 “상황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와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군사력과 경제적 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들에 강압적인 수단을 쓸 경우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과 대화했다”며 “그들에게 미국

이 한미일 3국 협력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희망을 직접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인도·태평양, 한국과 관련해 할 일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기꺼이 협력할 것이나, 그들이 파트너십을 약화하는 행동을 한다면 맞설 것이라고 (루비오 지명자 등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선 상원의원으로서 최우선시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 생활비 인하, 망가진 정부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국가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또 “한미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며 “나는 한국을 책임지는 지위에 누가 있건 간에 미국은 한국의 곁에 서 있을 것임을 한국민들에게 확신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 상원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 3월 119대 미의회 개원과 함께 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 배출은 120년 미주 한인 이민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모든 게 불타”...‘생지옥’ 연상 불길에 LA 주민들 경악

돌풍 타고 순식간에 시내 번져 ‘통제불능’ LA 산불 7개로 늘어 최소 5명 사망, 15만명 대피령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이 돌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시내까지 덮치면서 공간조한 산악 지대에서 발생한 화재를 자주 목격해왔던 LA 주민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4만여 명이 거주하는 LA 북부 교외 마을 알타데나 인근 이튼 협곡에서 전날 오후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민가로 번지면서 7곳으로 늘어 통제불능 상태다.

CNN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이미 불길의 휩쓸고 지나간 마을 곳곳에는 불에 탄 차량과 집들이 빼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버려져 있었고, 하늘은 자욱한 연기와 곳곳에 남은 불길로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한밤 중에 다급히 인근 패서디나의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주민들은 인근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이 이렇게 빨리 민가로 내려올 줄 몰랐으며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대피소에 가족과 함께 대피한 케빈 윌리엄스는 당시 상황이 “마치 전쟁터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돌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모든 게 불타고 있다. 사진은 불에 타 빼대만 앙상하게 남은 차량들. /AFP·연합뉴스

같았다”면서 “바람은 거세졌고, 불길은 9~12m 높이까지 치솟았으며 곳곳에서 ‘핑, 팽’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다. LA 근교의 건조한 산악 지대에서 나는 산불을 자주 목격해왔던 주민들도 최근 발생한 국지성 돌풍 ‘샌타나나’를 타고 한순간에 도심까지 덮친 이번 산불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털어놨다. 패서디나 대피소에서 만난 기세 프란시스 코렐라는 “수년간 화재를 겪어왔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전날부터 LA 서부 해안가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시작으로 이 지역에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5만명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화재가 시작된 LA 해안가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즐비한 호화 저택들도 불길을 피해가지 못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의회 의장인 수 폴은 CNN에 마을의 “사실상 모든 것이 사라졌다”면서 “교회와 학교,

상점, 주유소 등 모든 것이 불에 탔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영화배우 제임스 우즈는 “마치 지옥같았다, 우리 주변의 모든 집들이 불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산불이 최고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한 돌풍과 건조한 기후를 만나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당국이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서 실종됐던 中 배우, 미얀마서 구출

오디션으로 속여 납치...中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 소행인 듯

중국 배우가 태국에서 온라인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미얀마에서 사흘 만에 구출됐다. 8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태국-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배우 왕싱(31·사진 가운데)이 전날 미얀마 당국에 발견돼 태국으로 돌아왔다.

태국 경찰은 왕싱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왕싱은 중국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고 진술했다.

왕싱은 드라마 오디션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떠나 태국에 도착했다.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서 그를 태운 차량은 미얀마와 접한 북서부 딱주 매솟으로 이동했다.

그는 출입국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미얀마 미야와디로 끌려갔다.

미야와디는 온라인 사기 등을 일삼는 범죄 조직 근거지로 유명하다. 이들은 콜센터에 인력을 감금하고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중국인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태국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한다고 왕싱에게 접근해 태국으로 오게 했다고 설명했다.

왕싱은 미얀마로 가면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저항하지 못했고, 중국인을 겨냥한 사기 수법을 교육받



중국 배우가 태국에서 온라인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미얀마에서 사흘 만에 구출됐다. /AFP·연합뉴스

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상’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왕싱은 ‘호소소홍량 월홍관’, ‘매괴적고사’ 등의 중국 드라마에 출연했다.

최근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중국계 온라인 범죄 조직 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에 의한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 피해도 급증했다. 태국에서는 이번 사건이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패동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이번 일이 태국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3천500만명이며, 중국인이 67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외교부는 사건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기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사제·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